

NBA, 12월 말 시즌 개막 진통



▲ 2019-2020 시즌 우승을 차지한 LA레이커스의 앤소니 데이비스가 챔피언 결정전 마이애미와의 5차전에서 수비를 뚫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LA레이커스

NBA가 금년에 시즌 개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3일 '바스켓코리아' (basketkorea.com)에 따르면 NBA의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다음달 시즌 개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NBA는 현재 선수협회와 2020-2021 시즌 개최를 두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시즌 개최는 다음 달 말이 유력해 보였다. NBA 이사회가 12월 말 개최를 통해 경기 수를 확보하고 올림픽과 일정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정규 시즌 경기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야 선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시즌이 지연되어 재개되면서 서머리그가 일찌감치 취소된 가운데 2020 드래프트, 자유계약 공시 등 오프시즌 일정 또한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다음 달 말 개최가 정해진다면, 트레이닝캠프와 프리시즌까지 일정 구축이 쉽지 않다. 대개 NBA는 시간을 두고 캠프, 프리시즌을 진행한다. 시범경기

는 가급적이면 NBA 연고지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경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점과 함께 경기장 준비 등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시즌 경기 수에 따라 각 팀들의 일정을 정하는 것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경기장 사용을 두고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선수협회와 노사협약 부분 적용을 두고도 협상을 거듭해야 하는 만큼 다음 시즌 개최를 두고 쌓인 현안을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다음 시즌이 1월 중에 시작된다면, 일정 축소는 불가피하다. 경기 수가 줄어들면, NBA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미 이번 시즌을 정규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통해 거둬들일 관중 수익 상당 부분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중립 개최에 나서면서 광고 노출에 제약이 많았다.

다음 시즌을 제대로 끝내야만 이후 일정 복원이 가능하다. 2021-2022 시즌부터 드래프트와 서머리그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번 시즌 지연 재개의 후유증을 최대한 덜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시즌이 늦어도 7월에는 끝나야 한다.

선수노조도 내부적인 목소리를 정리해야 한다. 아무래도 12월 말에 시즌을 시작할 경우 플레이오프를 치른 팀들은 큰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리그 재개에 초청을 받지 못한 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실전을 치르지 못했기에 12월 개최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NBA가 시즌 개최 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과연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현진, 2년 연속 사이영상 최종 후보

2년 연속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오른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 시즌 활약에 대해 MLB.com이 높이 평가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류현진은 전날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세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20 시즌 토론토에 새롭게 등지를 뜬 류현진은 12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하며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다.

MLB.com은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다. 토론토가 원했던 진정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젊은 선수가 많은 팀을 안정화시켰다."며 "시즌 중 토론토 선발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고전할 때마다 류현진이 나서서 흐름을 끊었다. 또는 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고 류현진을 호평했다.

이번에 류현진이 AL 사이영상 후보 최종 3인에 이름을 올리며 류현진은 AL이적 첫 시즌부터 사이영상 투표 최소 3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류현진의 수상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함께 이름을 올린 마에다 겐타의 시즌 성적은 6승 1패 평균

자책점 2.70으로 류현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지표에선 우위를 점한다. 이닝당 출루 허용을 의미하는 WHIP가 0.75로 MLB 전체 1위다. 미네소타 역시 PS에 진출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세인 비버다. 비버는 8승 1패 평균자책점 1.63으로 타자를 압도했다. 다승 부문 MLB 공동 1위, 탈삼진과 평균자책점은 단독 1위다. 단축 시즌으로 치러져 100탈삼진을 넘긴 투수가 리그에 3명밖에 없었는데,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104개), 트레버 바우어(신시내티·100개)와 함께 비버가 그 주인공이었다.

아쉬운 점은 2020 시즌 류현진은 홈이 없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홈구장이 있는 토론토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류현진은 모든 경기를 원정경기로 치른 셈이다.

투수는 보통 홈에서 강하고, 원정경기에서는 고전한다.

류현진은 지난해 사이영상 투표 2위를 차지했다. 사이영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 선수 최초로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아시아 선수 최초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 표를 얻으며 성과를 남겼다.

2020 시즌 사이영상 수상자는 이달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 류현진이 2년 연속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사진=타운뉴스DB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